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1)*

-권8, 15:04~16:17 부분을 중심으로-

황선엽**

요약

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8의 15장 4행부터 16장 17행까지의 잠정적인 해독안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雜染施設建立은 ㉠煩惱雜染, ㉡業雜染, ㉢生雜染의 三種雜染으로 생겨나며 이들은 다시 각각 ㉠自性, ㉡分別, ㉢因, ㉣位, ㉤門, ㉥上品, ㉦顛倒攝, ㉧差別, ㉨過失의 9가지 연고로 말미암는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이 중 ㉡業分別(09:21-20:20)의 일부이다.

業分別은 다시 [1]補特伽羅相差別, [2]法相差別의 2종 차별로 말미암는데 이 두 차별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善不善業道가 있다: ㉠(離)殺生, ㉡(離)不與取, ㉢(離)欲邪行, ㉣(離)妄語, ㉤(離)離間語, ㉥(離)麤惡語, ㉦(離)綺語, ㉧(離)貪欲, ㉨(離)瞋恚, ㉩(離)邪見.

아래의 내용은 이 중 [1]㉥麤惡語(14:09-15:12)의 뒷 부분과 [1]㉦綺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5년 6월 18일, 9월 24일)에서 강독한 요지문을 바탕으로,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語(15:13-16:03), ⑧貪欲(16:04-16:10), ⑨瞋恚(16:11-16:17)의 앞 부분에 해당한다.

<유가08 15:04-05>

- A: 於現在世事[44(·),35(·),4자합부]及領受[2자합부-역독선]可愛樂[42(\\),34(/),35(·),43(l)]故[21(·)]名[54(·)]可[42(·)]欣語[53(·)]及可意語[53(·),33(·),33~43(·)¹⁾]應知[42(\\),51(·)]
- B: 於現在世事[+,ㄱ]及領受可愛樂[ノㄱ七,ㄴㄱ 乙,ㄱ,x]故[ノ]名[下]可欣語[ㄴ]及可意語[ㄴ,ㄱ,ㄷ]應知[ノㄱ七,ㄴ]
- C: {於}現在世事+(ㄴ)ㄱ 及 愛樂ノㄱ{可}七ㄴㄱ 領受(ㄴ)ㄱx {故}ノ 名下 可欣語ㄴ 及 可意語ㄴ(ㄴ)ㄱ 知ノㄱ{應}七
- D: 現在世의 일에 있어서나 (또한) 愛樂할 만한 것을 領受하거나 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可欣語니 可意語니 하는 것이니, 알아야 할 것이다,
- E: 현재 세상의 일과 받아들임의 것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말이라 하고 뜻에 맞는 말이라 하니,

<유가08 15:05-07>

- A: 卽等歡喜語[34(·)]名[54(·)]无量衆生[23(·)]可愛可樂可欣可意語[53(·),55(:)]
- B: 卽等歡喜語[乙]名[下]无量衆生[ㄴ]可愛可樂可欣可意語[ㄴ,x]
- C: 卽 等歡喜語乙 名下 无量 衆生ㄴ 可愛可樂可欣可意語ㄴx
- D: 곧 等歡喜語를 일컬어 无量 衆生의 可愛 可樂 可欣 可意語라고 하며
- E: 곧 같이 기뻐하는 말에는 한량없는 중생들이 사랑할 만하고 좋아

1) [33~43(:)](xㄷ)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뜻에 맞는 말들인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유가08 15:07>

A: 卽說法語[34(·)]名[54(·)]三摩呬多語[53(·),55(:)]

B: 卽說法語[乙]名[下]三摩呬多語[ㄱ, x ㄱ]

C: 卽 說法語乙 名下 三摩呬多語 ㄱx ㄱ

D: 곧說法語를 일컬어 三摩呬多²⁾의語이라고 하며

E: 곧 법을 말하는 말은 사마아히타의 말이라 하며,

<유가08 15:08-09>

A: 卽尸羅支[43(·)]所攝[+15~25(-),42(·)]語[34(·)]名[54(·)]由[역독
선]无悔等[34(/),22(·),3자합부]漸[42(·)]次[43(·)]能[55(·)]引三摩
地[34(·),15~24(/),42(·)]語[53(·),51(:)?]

B: 卽尸羅支[ㄴ]所攝[ノ尸, ㄷ]語[乙]名[下]由无悔等[ㄴ 1 乙, 3]漸[ㄷ]
次[ㄴ]能[ㄱ]引三摩地[乙, ㄴ ㄱ, ㄷ]語[ㄱ, x 1]

C: 卽尸羅支ㄴ 攝ノ尸 所ㄷ 語乙 名下 无悔 等ㄴ 1 乙 由 3 漸 ㄷ
次ㄴ 能ㄱ 三摩地乙 引ㄴ ㄱ ㄷ 語 ㄱx 1

D: 곧尸羅支로攝한바의 말을 일컬어无悔等を 말미암아 점차로
능히三摩地를 이끌(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

E: 곧쉬일라 갈래에포섭된말은뉘우침없을따위로말미암아점
차로사마아디를이끌수있는말이라한다.

<유가08 15:09-10>

A: 此中[44(·)]毒螫語[51(·)]者[23~33(·)]謂毀辱他[34(·),15~24(/),

2) 三摩呬多(삼마히다): 마음을統一함이란 뜻. 禪定의 一種으로 等引이라 번역한다. 定의 7가지 명칭 중의 하나로 <瑜伽師論地>에는 身心의 平安한 平等을 惹起하는 것이라 해석되어 있다.

42(·)言[22~32(·),51(·)]縱瞋毒[34(·),43(l)]故[53(·)]

B: 此中[+]毒螫語[]者[x入1]謂毀辱他[乙,ソ今,七]言[11,1]縱瞋毒[乙,xㄴ]故[→]

C: 此 中+ 毒螫語(11)1{者}x入1 謂 他乙 毀辱ソ今七 言11 瞋毒乙 縱xㄴ{故}→

D: 이 가운데에 毒螫語다 함은, 즉 남을 毀辱하는 말이다, 瞋毒을 제멋대로 풀어 놓는 까닭이다.

E: 이 중에, 해독된 말이라 함은 다른 이를 헐뜯는 말로서 성냄의 독이 제멋대로 굴게 하기 때문이며,

<유가08 15:10-11>

A: 麤獷語[51(·)]者[23~33(·)]謂惱亂他[34(·),15~24(/),42(·)]言[22~32(·),51(·)]發苦觸[34(·),43(l)]故[53(·)]

B: 麤獷語[]者[x入1]謂惱亂他[乙,ソ今,七]言[11,1]發苦觸[乙,xㄴ]故[→]

C: 麤獷語(11)1{者}x入1 謂 他乙 惱亂ソ今七 言11 苦觸乙 發xㄴ{故}→

D: 麤獷語다 함은, 즉 남을 惱亂하게 하는 말이다, 苦觸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E: 거칠고 사나운 말이라 함은 다른 이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말로서 괴로움의 당임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며,

<유가08 15:11-12>

A: 所餘[42(·)]麤惡語[33(·)]翻[역독선]前[42(·)]白品[34(·),33~43(/)]應知[42(\),51(·)]

B: 所餘[七]麤惡語[1]翻前[七]白品[乙,ソ1 卽]應知[ノㄴ七,1]

C: 餘 所七 麤惡語1 前七 白品乙 翻ソ1 卽 知ノㄴ{應}七1

D: 남은 바의 麤惡語는 앞의 白品을 뒤집은 것이니, 알아야 할 것이다.

E: 그 밖에 추악한 말은 앞의 깨끗한 품류와는 반대인 것으로 알아야 하리라.

<유가08 15:13>

A: 復次[23(·)]諸綺語者[51(·)]者[23~33(·)]此[33(·)]是捨句[22~32(·),55(·)]

B: 復次[→]諸綺語者[1]者[x∧1]此[1]是捨句[11,5]

C: 復次→諸綺語者(1)1{者}x∧1 此1 是捨句115

D: 또 다음으로 모든 綺語者다 하는 것은, 이는捨句이며

E: 또, 비단말을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다.

<유가08 15:13-14>

A: 於邪[23(·)]舉罪[15~24(/),42(·)]時[53(·),44(·)]有{45(·)}五種邪舉罪者[51(·)]

B: 於邪[→]舉罪[15,42]時[53,44]有五種邪舉罪者[1]

C: {於}邪→舉罪1542 時5344 五種 邪舉罪者 有1

D: 사되게 舉罪할 때에 다섯 가지 邪舉罪者가 있다.

E: 사되게 허물을 들 적에 다섯 가지가 있다.

<유가08 15:14-15>

A: 言[22~32(·)]不應時[44(·),43(l)]故[21(·)]名非時語者[53(·),55(·)]

B: 言[1]不應時[+,x]故[1]名非時語者[1,x5]

C: 言1 時+ 不應x{故}1 名(1) 非時語者→x5

D: ①말이 時에 不應한 까닭으로 일컬어 非時語者라고 하며

E: (사되게 허물을 드는 이라 함은)³⁾말함이 마땅한 때가 아니기 때

문에 때 아닐 적에 말하는 이라 하며,

<유가08 15:15>

A: 言[22~32(·)]不實[43(l)]故[21(·)]名[54(·)?]非實語者[53(·),55(:)]

B: 言[ㄱ]不實[x~]故[ㄴ]名[ㅈ]非實語者[→,xㅈ]

C: 言ㄱ 不實x~{故}ㄴ 名ㅈ 非實語者→xㅈ

D: ②말이 不實한 까닭으로 일컬어 非實語者라고 하며

E: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이라 하며,

<유가08 15:16>

A: 言引无義[34(·),43(l)]故[21(·)]名[54(·)]非義語者[53(·),55(:)]

B: 言引无義[乙,x~]故[ㄴ]名[ㅈ]非義語者[→,xㅈ]

C: 言(ㄱ) 无義乙 引x~{故}ㄴ 名ㅈ 非義語者→xㅈ

D: ③말이 无義를 이끄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義語者라고 하며

E: 말이 이치 없는 것을 이끌기 때문에 이치 아닌 말을 하는 이라 하며,

<유가08 15:16-17>

A: 言[22~32(·)]麤獪[43(l)]故[21(·)]名[54(·)]非法語者[53(·),55(:)]

B: 言[ㄱ]麤獪[x~]故[ㄴ]名[ㅈ]非法語者[→,xㅈ]

C: 言ㄱ 麤獪x~{故}ㄴ 名ㅈ 非法語者→xㅈ

D: ④말이 麤獪한 까닭으로 일컬어 非法語者라고 하며

E: 말이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법답지 않은 말을 하는 이라 하며,

3) 역경원 번역이 구절문과 맞지 않는다. <유가사지론> 권8의 각필 현토자와는 달리, ‘有五種’에서 구절을 끊어 번역하였다.

<유가08 15:17-18>

- A: 言[22~32(·)]挾[역독선]瞋恚[34(·),43(1)]故[21(·)]名[54(·)]非靜語者[53(·),51(:)]
- B: 言[11]挾瞋恚[乙,x^ㅁ]故[ノ]名[下]非靜語者[→,x 1]
- C: 言11 瞋恚乙 挾x^ㅁ{故}ノ 名下 非靜語者→x 1
- D: ⑤말이 瞋恚를 지니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靜語者라고 한다.
- E: 말이 성을 지녔기 때문에 고요하지 않은 말을 하는 이라 한다.

<유가08 15:18-19>

- A: 又於邪[23(·)]說法[=15~24(/),42(·)]時[53(·),44(·)]不正思審[=22(·), 4자합부]而[43(·)]宣[43(1)]說[43(1)]故[21(·)]名[=54(·)]不思議語[53(·),55(:)]
- B: 又於邪[→]說法[→今,七]時[→,+]不正思審[→]而[→]宣說[x^ㅁ]故[ノ]名[下]不思議語[→,x ㅅ]
- C: 又 {於}邪→ 說法→今七 時→+ 不正思審(→)→ 而→ 宣說x^ㅁ {故}ノ 名下 不思議語→x ㅅ
- D: 또 사되게 설법할 때에 不正思審하여 宣說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不思議語라고 하며
- E: 또, 사되게 법을 말할 적에는,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지 않으면서 널리 말하기 때문에 헤아리지 않은 말이라 하며,

<유가08 15:19-20>

- A: 爲勝聽者[34(·),빠침선(31,\\)]而[43(·)?]宣說[43(1)]故[21(·)]名[54(·)]不靜語[53(·),55(:)]
- B: 爲勝聽者[乙]而[→]宣說[x^ㅁ]故[ノ]名[下]不靜語[→,x ㅅ]
- C: 聽者乙 勝 爲 而→ 宣說x^ㅁ{故}ノ 名下 不靜語→x ㅅ
- D: 聽者를 勝하기 위하여 宣說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不靜語라고 하며

E: 듣는 이에게 이기기 위하여서 널리 말하기 때문에 고요하지 않은
말이라 하며,

<유가08 15:20-21>

A: 非時[44(·)]而[43(·)]說[22(·)]前後義趣[22~32(·)]不相屬[43(l)]故
[21(·)]名[54(·)]雜亂語[53(·),55(:)]

B: 非時[+]而[~]說[~]前後義趣[~]不相屬[x~]故[~]名[~]雜亂語
[~,x~]

C: 非時+ 而~ 說(~) ~ 前後 義趣~ 不相屬x~{故}~ 名~ 雜亂
語~x~

D: 非時에 말하여 前後 義趣가 不相屬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雜亂
語라고 하며

E: 때 아닌데도 말하고 앞과 뒤의 뜻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뒤섞
여 어지러운 말이라 하며,

<유가08 15:21-22>

A: 不中理[33(/),구결자(~)]因[43(·)]而[43(·)]宣說[43(l)]故[21(·)]
名[54(·)]非有教語[53(·),55(:)]

B: 不中理[~]因[~]而[~]宣說[x~]故[~]名[~]非有教語[~,x~]

C: 不中理~ 因~ 而~ 宣說x~{故}~ 名~ 非有教語~x~

D: 不中理하는 원인으로 宣說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有教語라고
하며

E: 이치와 원인에 맞지 않는데도 널리 말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지
않은 말이라 하며,

<유가08 15:22-23>

A: 引[역독선]不相應[=34(/)#35(/),22(·)]爲譬況[24(·),43(l)]故[21(·)]

名[54(·)]非有喩語[53(·)?,55(·)]

- B: 引不相應[ㄴ 乙, ㄹ]爲譬況[ㄹ, x ㄴ]故[ㄴ]名[ㄴ]非有喩語[ㄴ, x ㄴ]
 C: 不相應ㄴ 乙 引 ㄹ 譬況{爲} ㄹ x ㄴ{故} ㄴ 名 ㄴ 非有喩語 ㄴ x ㄴ
 D: 不相應하는 것을 이끌어 비유 삼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有喩語라고 하며
 E: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이끌어서 비유로 삼기 때문에 비유가 있지 않은 말이라 하며,

<유가08 15:23>

- A: 顯[역독선]穢染[34(·),=43(ㄹ),2자합부]故[21(·)]名[=54(·)]非有法語[53(·),51(·)]
 B: 顯穢染[乙, x ㄴ]故[ㄴ]名[ㄴ]非有法語[ㄴ, x ㄴ]
 C: 穢染乙 顯 x ㄴ{故} ㄴ 名 ㄴ 非有法語 ㄴ x ㄴ
 D: 穢染을 드러내는 까닭으로 일컬어 非有法語라고 한다.
 E: 더럽고 물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법이 있지 않은 말이라고 한다.

<유가08 15:23-16:02>

- A: 又於歌笑嬉戲{32~42(·)}等[15~24(ㄹ),42(·)]時[31(·)]及觀[역독선]舞樂戲笑俳[5자합부?]說{=23~33(·)}等[34(ㄹ),15~24(ㄹ),42(·)]時[31(·),44(·)]有[역독선]引无義[34(·),=15~24(ㄹ),42(·)]語[51(·)]
 B: 又於歌笑嬉戲等[ㄴ ㄴ, ㄴ]時[ㄴ]及觀舞樂戲笑俳說等[ㄴ 乙, ㄴ ㄴ, ㄴ]時[ㄴ, ㄴ]有引无義[乙, ㄴ ㄴ, ㄴ]語[ㄴ]
 C: 又 {於}歌笑嬉戲等ㄴ ㄴ ㄴ 時 ㄴ 及 舞樂戲笑俳說 等ㄴ 乙 觀ㄴ ㄴ ㄴ 時 ㄴ ㄴ 无義乙 引ㄴ ㄴ ㄴ 語 有 ㄴ
 D: 또 歌笑嬉戲 등의 때와 (및) 舞樂戲笑俳說 등을 구경할 때에 无義를 이끄는 말이 있다.
 E: 또, 노래하고 웃고 재미있게 놀 때와 춤과 음악과 익살과 광대

놀이 따위를 구경할 때에는 이치 없는 말을 인용하게 된다.

<유가08 16:02-03>

- A: 此中[22(·),42(·)]略義[22~32(·)]者[15~25(-),23~33(·)]謂[33(·)?]
顯[역독선]如前[23(·)]說[11~21(\)⁴],33(/)]三時綺語[34(·),51(:)]
- B: 此中[ㄷ, ㄷ]略義[ㄴ]者[ㄱ, ㄱ]謂[ㄴ]顯如前[ㄷ]說[ㄴ ㄷ ㄷ, ㄴ ㄴ]三
時綺語[ㄷ, x ㄴ]
- C: 此 中 ㄷ ㄷ 略義 ㄴ {者} ㄱ ㄱ 謂 ㄴ 前 ㄷ 說 ㄴ ㄷ ㄷ {如} (支) ㄴ ㄴ
三時綺語 ㄷ 顯 x ㄴ
- D: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 즉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三時綺語
를 나타내는 것이다.
- E: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때의 비단말을 나타냄을 말한다.

<유가08 16:04>

- A: 復次[23(·)]諸貪欲者[51(·)]者[23~33(·)]此[33(·)]是捨句[55(·)]⁵
- B: 復次[ㄷ]諸貪欲者[ㄴ]者[x ㄱ]此[ㄴ]是捨句[ㄷ]
- C: 復 次 ㄷ 諸 貪欲者 (ㄴ) ㄴ {者} x ㄱ 此 ㄴ 是 捨句 (ㄴ) ㄷ
- D: 또 다음으로 모든 貪欲者다 함은, 이는 捨句이며
- E: 탐내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

<유가08 16:04-06>

- A: 由[역독선]猛利貪[34(·),=24(·),51(·)]者[23~33(·)]謂於他[23(·)]所
有[22~23(·),33(\),44(·)]由貪增上[+45(/),=22(·),경계선]欲爲己[23

4) 서민욱(2005가)에서는 [11(\)]으로 보고 [ㄴ ㄷ ㄷ]로 해독하였다. 즉 “說 ㄴ ㄴ {如} ㄷ ㄴ ㄴ”으로 해독하였다.

5) 종이가 닳아서 [22~32(·)]이 보이지 않는다.

(·)有[22~23(·)#22~23(·),11~21(-),24(·),31(·)]起決定執[34(·),43(·)]故[55(·)]

B: 由猛利貪[乙, ʔ, 1]者[x ∧ 1]謂於他[→]所有[4, 1, 1, +]由貪增上[尸 ∧ 乙, ʔ]欲爲己[→]有[4, ʔ, ʔ, 人]起決定執[乙, 去 1 ∧ ~]故[3]

C: 猛利貪乙 由 ʔ 1 {者} x ∧ 1 謂 {於}他 → {有} 4 1 1 所 + 貪 增上(∨)尸 ∧ 乙 由 ʔ 己 → {有} 4 ʔ {爲} ʔ {欲} 人 決定執乙 起去 1 ∧ ~ {故} 3

D: 猛利貪을 말미암다 함은, 즉 남의 가진 바에 대해서 貪 增上하는 것을 말미암아 자기의 가진 바 삼고자 決定執을 일으키는 까닭이며

E: 아주 몹시 탐낸다 함은 다른 이의 소유에 대하여 탐욕의 왕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하여 결정적인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유가08 16:06-08>

A: 於財[51(·)]⁶⁾者[23~33(·)]謂[33(·)]世俗財類[44(·), +15~25(∨), 55(·)]具[51(·)]者[23~33(·)]謂所[역독선]受用[+15~25(-), 42(·)]資具[=33~43(·), 53(·)]卽此二種[34(·)]揔[45(·)]名[=54(·)]爲物[53(·), 55(·)]

B: 於財[1]者[x ∧ 1]謂[1]世俗財類[+, 尸 矢, 3]具[1]者[x ∧ 1]謂所受用[1, 尸, 7]資具[印, 4]卽此二種[乙]揔[3]名[下]爲物[4, x 3⁷⁾]

C: 於財(1) 1 {者} x ∧ 1 謂 1 世俗財類+(∨)尸 矢 3 具(1) 1 {者} x ∧ 1 謂 受用 1 尸 所 7 資具 印 4 卽 此 二種 乙 揔 3 名 下 {爲} 物 4-x 3

D: 於財다 함은, 즉 世俗財類에 대해서 하는(있는) 것이며, 具다 함

6) '於'와 '財' 사이에 합부로 보이는 각필선의 흔적이 있는 듯도 하다.

7) 금광평경에서 '55(·)'은 'ㄷ ㅈ ㅅ'에 대응한다.

은, 즉 受用하는 바의 資具이니, 곧 이 두 가지를 통틀어 이름하여 物이라고 하며

E: 재물에 대하여라 함은 세속의 재물들을 말하며, 도구라 함은 수용하는 바의 살림 도구이니, 곧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물건이라고 한다.

<유가08 16:08-16:09>

A: 凡[23(·)]彼[22~32(·)?]所有[22~23(·),33(·),34(·)?]定[21(·)⁸⁾]當[32~42(·)]屬我[23(·),44(·),24(·)?⁹⁾,+15~25(·),51(·)]者[23~33(·)]{23(·)}¹⁰⁾此顯[역독선]貪欲[23(·)]生起[24(·),42(·)]行相[=34(·),55(·)]

B: 凡[→]彼[11]所有[4,ノ1,乙]定[→]當[ハ]屬我[→,十,ス11¹¹⁾,尸矢,1]者[x入1]此顯貪欲[→]生起[ノ今,七]行相[乙,x分]

C: 凡→ 彼11 {有}4ノ1 所乙 定→ 當ハ 我→十 屬ス11尸矢1 {者}x入1 此(1) 貪欲→ 生起ノ今七 行相乙 顯x分

D: 무릇 그가 가진 바를 반드시 나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함은, 이는 貪欲의 生起하는 行相을 나타냄/내는 것이며

E: 무릇 그의 소유를 반드시 나에게 소속되도록 하여야겠다 함은 이는 탐욕이 생기는 행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며,

8) 21보다는 약간 높은 듯도 하여 '11(·)'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듯하다. 자토석 독구결에는 '定'이 부사로 쓰인 예가 없다.

9) '我'자의 마지막 획에 붙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10) <유가사지론> 권8 16장 8행의 난하에 역사선이 길게 그어져 있는데 그 기능은 미상이다.

11) '스11'는 주로 '23~24(·)'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24(·)에 찍힌 점을 고려할 때 혹 '屬'을 '브티-'정도로 읽고 그 말음 '11'를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

<유가08 16:09-16:10>

- A: 此中[22(·),42(·)]略義[22~32(·)]者[15~25(-),23~33(·)]當知[51(·)]
顯示¹²⁾貪欲自性[31(·)]貪欲所緣[31(·)]貪欲行相[31(·),34(·),33~
43(·)]¹³⁾,+11(·)]
- B: 此中[3, 7]略義[1]者[尸, 入 7]當知[1]顯示貪欲自性[人]貪欲所緣
[人]貪欲行相[人, 乙, x印, 丁]
- C: 此 中 3 7 略義 1 {者}尸 入 7 當 (ハ) 知 (フ) 1 貪欲自性 人 貪欲
所緣 人 貪欲行相 人 乙 顯示 x印 丁
- D: 이 중의 略義인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貪欲自性和 貪欲所緣
과 貪欲行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 E: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 탐욕의 제성품과 탐욕의 반연하는 바
와 탐욕하는 행의 모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 줄 알아야 하리라.

<유가08 16:11>

- A: 復次[23(·)]瞋恚心者[51(·)]者[23~33(·)]此[33(·)]是捨句[22~32(·),
55(·)]
- B: 復次[3]瞋恚心者[1]者[x 入 7]此[7]是捨句[11, 5]
- C: 復 次 3 瞋恚心者 (11) 1 {者} x 入 7 此 7 是 捨句 11 5
- D: 또 다음으로 瞋恚心者다 함은, 이는捨句이며
- E: 성내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

<유가08 16:11-13>

- A: 惡意分別[51(·)]者[23~33(·)]謂於他有情[23(·)]所[44(·)]由瞋恚增

12) ‘顯示’에 2자합부 역독선의 흔적이 있는 듯도 하다.

13) ‘33~43(·)’은 ‘33(·), 33~43(·)’(7, 印)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첫번째 점이 일
반적인 33 위치보다는 약간 낮게 찍힌 점과 두 점이 비교적 가깝게 찍혀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33~43(·)’으로 처리하였다.

上力[34(·),22(·)]欲爲損害[34(·),31(·),뻘침선(22,\)]起[역독선]決定執[34(·),43(l)]故[55(·)?]

- B: 惡意分別[1]者[x入 1]謂於他有情[2]所[+]由瞋恚增上力[乙, 3]欲爲損害[乙, 人]起決定執[乙, 2 1 入 3]故[3]
- C: 惡意分別(1) 1 { 者 } x 入 1 謂 { 於 } 他 有情[2]所[+]瞋恚增上力[乙 由 3]損害乙 爲{ 欲 } 人 決定執乙 起 2 1 入 3 { 故 } 3
- D: 惡意分別이다 함은, 즉 다른 有情에게 瞋恚 增上力을 말미암아 損害를 (끼치게) 하고자 決定執을 일으키는 까닭이며
- E: 나쁜 뜻으로 분별한다 함은 다른 유정에게 대하여 성냄의 왕성한 힘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끼치려 하여 결정적인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유가08 16:13-14>

- A: 當煞[51(·),2자합부]者[23~33(·)]謂欲傷害[2자합부-역독선]其身[34(·),31(·),+15~25(/),55(·)]
- B: 當煞[1]者[x入 1]謂欲傷害其身[乙, 人, 尸 矢, 3]
- C: 當煞(1) 1 { 者 } x 入 1 謂 其 身乙 傷害(3) { 欲 } 人(3) 尸 矢 3
- D: 當煞이다 함은, 즉 그 몸을 傷害하고자 함/하는 것이며
- E: 죽여야겠다 함은 그의 몸을 상해하려 함이며,

<유가08 16:14>

- A: 當害[51(·),2자합부?]者[23~33(·)]謂欲損惱[2자합부-역독선]其身[34(·),31(·),+15~25(/),55(·)]
- B: 當害[1]者[x入 1]謂欲損惱其身[乙, 人, 尸 矢, 3]
- C: 當害(1) 1 { 者 } x 入 1 謂 其 身乙 損惱(3) { 欲 } 人(3) 尸 矢 3
- D: 當害다 함은, 즉 그 몸을 損惱하고자 하는 것이며
- E: 해쳐야겠다 함은 그의 몸을 괴롭게 하려 함이며,

<유가08 16:14-15>

- A: 當爲衰損[51(·),4자합부¹⁴⁾]者[23~33(·)]謂欲令彼財物[34(·)]{31(·), 25(·)}損耗[23~24(·)#24(·),31(·),+15~25(·),55(·)]
- B: 當爲衰損[]者[x入7]謂欲令彼財物[乙]損耗[소 11,人,尸矢,分]
- C: 當爲衰損(11)1{者}x入7 謂 彼 財物乙 損耗{令}소 11{欲}人(·)尸矢分
- D: 當爲衰損이다 함은, 즉 그 財物을 損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 E: 손해를 끼쳐야겠다 함은 그의 재물이 소모되게 하려 함이며,

<유가08 16:15-17>

- A: 彼[33(·)]當[32~42(·)]自[43(·)]獲種種憂惱[34(·),51~52(·)]者[23~33(·)]謂[33(·)]欲令彼[43(·)]自[43(·)]失[역독선]財¹⁵⁾物[34(·),24(·),31(·),+15~25(·),51(·)]
- B: 彼[7]當[8]自[·]獲種種憂惱[乙,x 1]者[x入7]謂[7]欲令彼[·]自[·]失財物[乙,소 11¹⁶⁾,人,尸矢,1]
- C: 彼7 當8 自· 種種 憂惱乙 獲x 1{者}x入7 謂7 彼· 自· 財物乙 失{令}소 11{欲}人(·)尸矢 1
- D: 그는 반드시 스스로 갖가지 憂惱를 얻는다 함은, 즉 그로 (하여금) 스스로 財物을 잃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 E: 그에게 스스로 갖가지 조심과 괴로움을 얻게 해야겠다 함은 그가 스스로 재물을 잃게 하려 함이며,

14) ‘當’에 합부선이 불확실하나 ‘爲’ 위로 합부선이 길게 뻗쳐 나가 있다.

15) 16행 난하의 왼쪽에 긴 역사선이 각필로 그려져 있다.

16) 원문에 ‘승’이 있어 ‘소 11’로 파악하였으나 ‘23~24(·)’가 아닌 ‘24(·)’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사동사로 쓰인 ‘失’의 말을 ‘11’(기원적으로는 사동접미사)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사동사는 아니지만 “衆生11 {於}見乙 失11 3 7 乙 世尊11 3 能分 濟度 3 乙 分 <금광13:04-07>”에서 ‘失’에 말을 ‘11’가 쓰인 예를 볼 수 있다.

<유가08 16:17>

A: 此[42(·)]中[22(·),42(·)]略義[22~32(·),15~25(-),23~33(·)]如前
[23(·),11~21(\\),33~43(/)]應知[42(\\),51(·)]

B: 此[七]中[ㄴ, ㄷ]略義[ㄴ, ㄷ, ㄹ]如前[ㄹ, ㄴ ㄷ ㅅ?, ㄴ ㄷ ㅅ]應知[ㄴ ㅅ
七, ㅅ]

C: 此七 中 ㄴ 七 略義 ㄴ ㄷ ㄹ 前 ㄹ ㄴ ㄷ ㅅ {如} (支) ㄴ ㄷ ㅅ 知 ㄴ ㅅ
{應} 七 ㅅ

D: 이 중의 略義인 것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 이 중에 간략한 이치는 앞에서와 같은 줄 알아야 하리라.

참고문헌

- 김성주(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6)」, 『구결연구』 14집, 구결학회, 213-232.
-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土)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57-77.
- 남풍현(1999),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 박진호(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구결연구』 12집, 구결학회, 216-231.
- 서민욱(2005가), 「유가사지론 권5·8의 점토구결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민욱(2005나),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5)」, 『구결연구』 14집, 구결학회, 197-212.
- 동국역경원(1995), 『한글대장경 유가사지론 1』.
- 이승재(2001),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이승재·안효경(2001),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성암본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115-145.
- 이 용(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3)」, 『구결연구』 12, 구결

학회, 233-247.

이전경(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4)」,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221-243.

장경준(2002),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대응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205-225.

장경준(2004-1),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92-212.

장경준(2004-2), 「구결점의 현토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49-174.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idhsy@sungshin.ac.kr

접수일자: 2005. 12. 23.

게재결정: 2006. 01. 25.

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 Ⅷ. 15:04-16:17—

Hwang, Seon-yeop

This paper surveys the brief textual structure of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8,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

*Key word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黑點吐口訣)